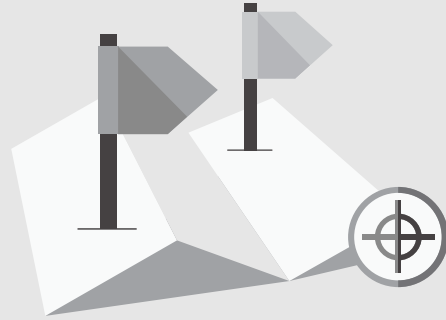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대응 모색



다차원 측면에서 바라본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적 함의
김태완·최준영

노동 양극화 현황과 과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임완섭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이주미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다차원 측면에서 바라본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적 함의

The Implications of Polarization in Multidimensional Aspects for Social Policy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최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2006년에서 2020년 사이 교육 수준, 소득 및 자산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따른 양극화를 살펴보았다. 시장소득 1분위 내 교육 수준별 격차는 2006년 약 153만 원에서 2020년 409.4만 원으로 벌어졌다. 가처분소득 역시 2006년 약 101만 원에서 2020년 531.6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수준별 구성비의 경우 낮은 소득과 자산 분위에서는 고졸 이하의 비중이 대학 이상 학력자에 비해 높았다. 고분위에서는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같은 분위 내에서 교육 수준별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수준과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같은 분위 내 경제활동과 사업장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교육 수준별 차이가 2006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낮은 분위와 높은 분위 간 격차의 경우 시장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반면 가처분소득은 다소 줄어들고 있어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들어가며¹⁾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 중 대표적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양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양극화는 말 그대로 특정 사회적 현상이 양극단으로 몰리며 이원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 중간 소득을 가진 그룹은 줄어들고, 소득이 많거나 적은 그룹으로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연구로 수행된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의 일부(4장 4절)를 재정리한 것이다.

양분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도 서울 강남권과 같은 지역의 자산 가격은 오르는 반면 지방의 군에 해당되는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거나 현상 유지를 하면서 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다.

양극화의 의미는 다양하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갈등은 물론 계층 간 위화감 등을 조성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거의 정부들은 조세제도 조정, 사회보장제도 확충, 기업 규모에 따른 불공정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국민은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주목되는 점은 양극화를 넘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양 끝으로 모이는 것에 주목하는 개념이 양극화라면,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문제를 나타내는 개념은 격차 현상이다²⁾.

그에 따라 양극화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양극화의 원인은 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학력 수준이 높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인기 학과 등에 진학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되며 장기적으로 소득, 사회적 지위 등에서 차이를 보여 주는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극화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격차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나 논문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노동참여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및 자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 흐름에 따른 분석은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수준이 소득과 자산에서 어떻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초래하는지, 경제활동 참여상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양극화와 더불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격차 현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분배지수 중에 5분위 배율 혹은 10분위 배율이 있다. 이는 소득을 5등분 혹은 10등분한 이후 소득이 가장 높은 급간이 소득이 가장 낮은 급간에 비해 몇 배의 소득을 더 가지고 있느냐를 직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연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연간 평균소득이 1억 원일 때 10분위 배율은 10이 되는 것이다. 양극화는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로 소득분포가 집중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앞의 설명에서 격차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 소득이 동일하게 10%씩 높아지면 소득 1분위 소득은 1,100만 원이 되고 소득 10분위 소득은 1억 1,000만 원이 된다. 이때도 10분위 배율은 10으로 변화가 없다. 반면 격차를 보면 10% 소득 증가전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평균소득 격차는 9,000만 원이었지만, 소득이 10% 증가한 이후의 격차는 9,900만 원으로 900만 원이라는 격차가 새롭게 늘어난 것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변화를 고려하면,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현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가격에 있어 양극화와 더불어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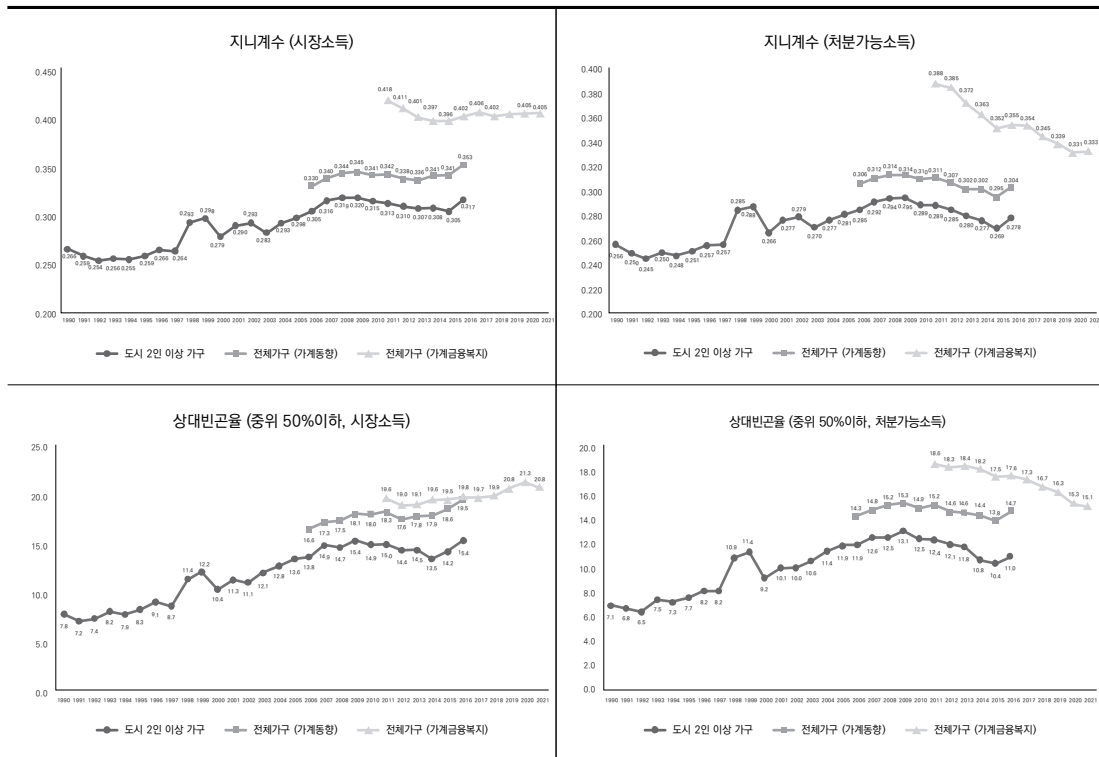
2. 양극화 개념과 분배 변화

양극화(兩極化, bipolarization)는 자원(소득, 자산, 고용 등)이 양 끝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분포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포함하기도 한다. 반면 소득분배는 양극화와 다르게 자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분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빈곤은 빈곤선 개념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 혹은 미만의 계층에 대한 변화와 특

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격차는 특정 그룹 간 자원의 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차이가 나고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 빈곤, 격차 등은 소득분배를 특징적으로 설명하며 사회현상의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세분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빈곤의 경우는 소득분배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인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다는 점에서 다른 범주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이는 연구자, 학자 등의 분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림 1. 소득 종류별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2022. 12. 30. 인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양극화 특히 격차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극화의 개념과 측정은 연구적 측면에서는 2005년 신동균, 전병유의 논문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한 사회이슈로서 자리 잡고 있다(김왕배, 2009; 신동균·전병유, 2005).

우리가 양극화 혹은 격차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도 시장에서의 소득분배와 상대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한 이후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의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배 변화가 양극화 특히 격차 측면에서 교육을 매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3. 교육 수준에 따른 양극화 진단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와 격차 발생은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윤정열, 홍기석(2012)은 교육이 하나의 신호 기능을 함으로써 고용주는 교육 수준이라는 외부 효과를 통해 근로자를 선택하고 그 결과 동일 생산성 그룹 내에서 교육 수준별로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도 교육 양극화 현상을 “개인의 배경, 즉 가계소득, 부모 학력,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상하집단으로 쏠리게 되면서 중간층이 감소하고 집단 간 이질성이 커지며 집단 내 동질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단 간 이동성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교육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학업성취, 대학진학 등”에 대한 분석이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경애, 류방란, 이성희, 이승호, 이희현, 장명림, 정도철 외, 2020, xiii, 재인용). 이 글에서도 앞의 연구가 지적한 것에 대해 패널이라는 장기 데이터를 통해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소득, 자산,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교육 수준과 소득 및 자산 간 비교:

2006년과 2020년 기준

기존 양극화 연구가 주로 횡단면에 기반한 단차원적 분석이었다면 여기서는 교육, 소득, 자산 및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은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 연도(소득 기준 2006년)와 16차 연도(소득 기준 2020년)를 기준으로 지난 1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및 자산 동일 분위 내 교육 수준별 격차를 살펴보면, 2006년 당시 약 153만 원

(984.2만-831.0만 원)이던 시장소득 1분위 내 교육 수준별 격차가 2020년에는 409.4만 원으로 벌어져 있다. 가처분소득 역시 2006년 약 101만 원에서 2020년 531.6만 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보다 자산의 격차가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어, 동일 분위 내에서도 교육 수준별 소득과 자산에서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

표 1. 교육수준별 소득 및 자산 5분위별 연간소득 및 자산액 규모 비교 : 2006년, 2020년 사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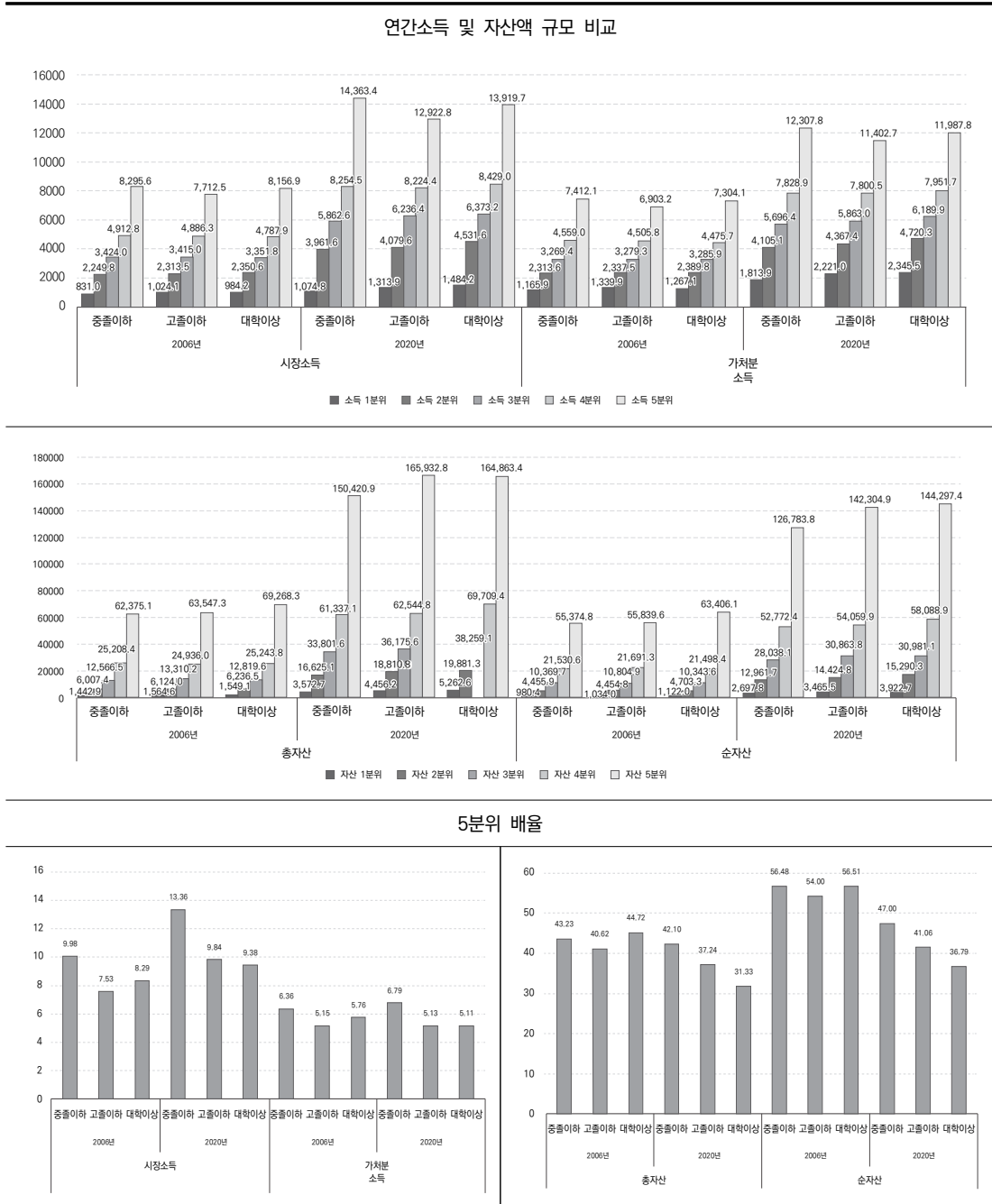
(단위: 만 원)

구분	2006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시장소득	중졸 이하	831.0	2,249.8	3,424.0	4,912.8	8,295.6	9.98
	고졸 이하	1,024.1	2,313.5	3,415.0	4,886.3	7,712.5	7.53
	대학 이상	984.2	2,350.6	3,351.8	4,787.9	8,156.9	8.29
	2020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1,074.8	3,961.6	5,862.6	8,254.5	14,363.4	13.36
	고졸 이하	1,313.9	4,079.6	6,236.4	8,224.4	12,922.8	9.84
대학 이상	1,484.2	4,531.6	6,373.2	8,429.0	13,919.7	9.38	
구분	2006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가처분 소득	중졸 이하	1,165.9	2,313.6	3,269.4	4,559.0	7,412.1	6.36
	고졸 이하	1,339.9	2,337.5	3,279.3	4,505.8	6,903.2	5.15
	대학 이상	1,267.1	2,389.8	3,285.9	4,475.7	7,304.1	5.76
	2020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1,813.9	4,105.1	5,696.4	7,828.9	12,307.8	6.79
	고졸 이하	2,221.0	4,367.4	5,863.0	7,800.5	11,402.7	5.13
대학 이상	2,345.5	4,720.3	6,189.9	7,951.7	11,987.8	5.11	
구분	2006년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총자산	중졸 이하	1,442.9	6,007.4	12,566.5	25,208.4	62,375.1	43.23
	고졸 이하	1,564.6	6,124.0	13,310.2	24,936.0	63,547.3	40.62
	대학 이상	1,549.1	6,236.5	12,819.6	25,243.8	69,268.3	44.72
	2020년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3,572.7	16,625.1	33,801.6	61,337.1	150,420.9	42.10
	고졸 이하	4,456.2	18,810.8	36,175.6	62,544.8	165,932.8	37.24
대학 이상	5,262.6	19,881.3	38,259.1	69,709.4	164,863.4	31.33	
구분	2006년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순자산	중졸 이하	980.4	4,455.9	10,369.7	21,530.6	55,374.8	56.48
	고졸 이하	1,034.0	4,454.8	10,804.9	21,691.3	55,839.6	54.00
	대학 이상	1,122.0	4,703.3	10,343.6	21,498.4	63,406.1	56.51
	2020년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2,697.8	12,961.7	28,038.1	52,772.4	126,783.8	47.00
	고졸 이하	3,465.5	14,424.8	30,863.8	54,059.9	142,304.9	41.06
대학 이상	3,922.7	15,290.3	30,981.1	58,088.9	144,297.4	36.79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영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 292. p. 296).

그림 2. 교육수준별 소득 및 자산 5분위별 연간소득 및 자산액 규모 비교: 2006년, 2020년 사이 변화

(단위: 만 원)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 292, p. 296.) 및 재구성.

표 2. 교육 수준별 소득 및 자산 기준 5분위 구성비(2006년 기준)

(단위: %)

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56.1	39.1	31.9	25.2	20.4
고졸 이하	28.5	36.9	36.9	30.7	25.6
대학 이상	15.4	24.0	31.2	44.1	54.0
가처분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57.9	37.6	30.7	26.6	19.9
고졸 이하	28.2	37.2	37.0	29.6	27.0
대학 이상	13.9	25.2	32.4	43.7	53.1
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44.5	37.2	33.6	30.8	26.7
고졸 이하	36.8	31.6	32.1	31.4	27.3
대학 이상	18.8	31.2	34.3	37.9	45.9
순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47.0	37.0	33.6	31.0	27.3
고졸 이하	36.7	31.8	31.1	31.1	27.8
대학 이상	16.3	31.2	35.3	37.9	44.9

자료: 김태원,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 292, p. 296.).

소득 기준 중졸 이하 소득 1분위와 대학 이상 소득 5분위 간 격차는 2006년 9.82배(8,156.9/831.0)에서 2020년 12.95배로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시장소득에 비해 격차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공적이전 및 조세·사회보험료 부담금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총자산과 순자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력별로 5분위 분배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같이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학력별, 분위별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동일 분위 내에서 교육 수준별 자산 격차가 2006년에 비해 2020년 모두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분위 내 교육 수준별 구성비(2006년 기준)를 보면 소득과 자산이 낮은 분위에서의 중졸 이하 혹은 고졸 이하의 비중이 대학 이상에 비해 높았다. 반면 고분위에서는 대학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동일 분위 내에서 교육 수준별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 교육과 소득 및 노동시장 참여 형태별 양극화 진단

여기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교육 수준,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사업장 규모상태별로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각 표의 평균소득과 평균자산은 <부표 1>에 기술되었으며, <표 3>과 <표 4>는 각각

표 3. 교육,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위 간 비교: 시장소득 2006년과 2020년 변화¹⁾

(단위: %)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경황상태	2006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상용직	86.9	94.6	92.4	96.5	90.1
	임시일용	74.0	87.9	86.5	100.3	94.6
	자영업주	71.6	92.9	95.2	97.8	105.5
	비경황	76.4	87.8	90.5	87.6	83.1
고졸 이하	상용직	115.7	101.4	100.7	102.5	86.3
	임시일용	91.0	94.5	94.5	108.3	97.2
	자영업주	105.1	101.5	101.4	101.0	117.6
	비경황	82.0	88.9	100.0	119.3	0.0
대재 이상	상용직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시일용	113.5	95.5	93.3	93.8	108.2
	자영업주	91.2	107.1	102.8	105.7	108.4
	비경황	82.3	87.7	96.5	99.2	76.6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경황상태	2020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상용직	92.7	84.3	90.9	81.9	84.6
	임시일용	69.8	72.8	81.7	87.2	78.3
	자영업주	62.6	74.4	81.7	80.3	70.0
	비경황	63.2	69.2	90.5	108.4	67.7
고졸 이하	상용직	109.2	86.5	100.9	93.3	85.6
	임시일용	93.4	76.8	90.0	92.5	92.7
	자영업주	87.4	84.9	97.8	90.4	101.5
	비경황	63.1	90.0	97.6	91.1	71.3
대재 이상	상용직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시일용	94.9	79.0	95.5	90.9	92.1
	자영업주	98.2	88.2	100.8	95.8	90.3
	비경황	79.3	100.7	102.4	89.4	113.9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경황상태	2006년과 2020년 차이 변화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상용직	5.8	-10.3	-1.5	-14.6	-5.5
	임시일용	-4.2	-15.1	-4.8	-13.1	-16.3
	자영업주	-8.9	-18.5	-13.5	-17.6	-35.5
	비경황	-13.3	-18.6	0.0	20.8	-15.4
고졸 이하	상용직	-6.5	-14.9	0.1	-9.2	-0.7
	임시일용	2.5	-17.7	-4.5	-15.8	-4.5
	자영업주	-17.8	-16.6	-3.5	-10.6	-16.1
	비경황	-18.9	1.1	-2.3	-28.2	71.3
대재 이상	상용직	0.0	0.0	0.0	0.0	0.0
	임시일용	-18.6	-16.6	2.2	-3.0	-16.1
	자영업주	7.0	-19.0	-2.0	-9.9	-18.1
	비경황	-3.0	13.0	5.8	-9.8	37.3

주: 1) 상용직=100, <부표 1> 참조.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 303.).

표 4. 교육, 경제활동상태, 자산 분위 간 비교: 총자산 2006년과 2020년 변화¹⁾

(단위: %)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경황상태	2006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상용직	91.9	92.6	106.0	94.2	89.7
	임시일용	70.2	99.4	91.0	86.2	94.0
	자영업주	96.2	100.9	93.5	91.4	110.2
	비경황	110.2	78.9	80.5	59.9	62.0
고졸 이하	상용직	103.8	105.1	104.1	94.1	81.7
	임시일용	93.3	105.6	103.0	97.4	87.8
	자영업주	104.8	114.3	106.7	98.5	120.1
	비경황	87.0	107.7	106.5	80.9	105.0
대재 이상	상용직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시일용	77.5	120.3	99.9	88.8	105.2
	자영업주	113.4	112.7	114.5	105.8	123.4
	비경황	43.4	92.6	102.4	104.9	81.8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경황상태	2020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상용직	97.3	77.6	86.2	74.7	74.5
	임시일용	50.1	75.3	80.6	78.9	67.6
	자영업주	65.8	82.9	74.3	71.7	92.3
	비경황	43.2	58.2	85.4	72.2	52.8
고졸 이하	상용직	76.0	100.2	93.5	83.3	107.1
	임시일용	59.4	89.7	93.3	84.0	94.6
	자영업주	81.3	94.6	98.4	84.9	118.8
	비경황	65.4	75.1	83.8	70.2	85.0
대재 이상	상용직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시일용	56.2	96.7	97.4	91.2	91.2
	자영업주	104.4	108.2	102.4	91.5	120.2
	비경황	60.5	90.2	84.1	81.4	80.8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경황상태	2006년과 2020년 차이 변화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상용직	5.4	-15.0	-19.8	-19.5	-15.2
	임시일용	-20.2	-24.1	-10.3	-7.3	-26.4
	자영업주	-30.4	-18.1	-19.2	-19.6	-17.9
	비경황	-67.0	-20.7	4.9	12.3	-9.2
고졸 이하	상용직	-27.8	-4.9	-10.6	-10.8	25.3
	임시일용	-33.9	-15.8	-9.7	-13.5	6.8
	자영업주	-23.4	-19.7	-8.3	-13.6	-1.3
	비경황	-21.5	-32.5	-22.7	-10.7	-20.0
대재 이상	상용직	0.0	0.0	0.0	0.0	0.0
	임시일용	-21.3	-23.5	-2.5	2.3	-14.0
	자영업주	-9.0	-4.6	-12.1	-14.3	-3.3
	비경황	17.1	-2.3	-18.3	-23.5	-1.0

주: 1) 상용직=100, <부표 1> 참조.

자료: 김태원, 이주미, 김기태, 임원섭, 송치호, 김명중, 김명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p. 307.).

표 5. 교육, 사업장규모, 소득분위 간 비교: 시장소득 2006년과 2020년 변화¹⁾

(단위: %)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사업장 규모	2006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10인 미만	72.5	93.5	90.3	94.5	107.1
	10~100인	74.4	94.7	99.0	100.4	96.9
	100~1000인	80.0	94.2	89.5	96.8	85.6
	1000인 이상	85.5	100.2	101.3	106.4	98.4
고졸 이하	10인 미만	100.9	99.4	98.4	100.9	111.5
	10~100인	80.3	105.9	102.0	100.7	96.1
	100~1000인	118.8	99.8	93.2	102.1	86.3
	1000인 이상	0.0	98.2	109.1	115.0	93.3
대재 이상	10인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100인	113.2	102.6	97.7	92.7	118.7
	100~1000인	96.4	110.3	102.6	103.5	95.9
	1000인 이상	109.9	105.3	99.3	103.3	103.8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20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10인 미만	70.7	85.3	85.9	87.1	79.9
	10~100인	74.5	86.5	87.0	88.8	83.5
	100~1000인	60.2	88.5	71.6	92.5	102.0
	1000인 이상	66.8	126.4	0.0	107.8	72.5
고졸 이하	10인 미만	94.0	95.2	97.2	94.7	103.3
	10~100인	103.8	91.8	98.5	96.9	103.2
	100~1000인	93.2	92.6	103.0	102.6	96.6
	1000인 이상	107.3	108.3	102.3	98.5	98.8
대재 이상	10인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100인	112.7	105.0	96.0	97.0	102.6
	100~1000인	69.6	117.4	105.7	106.0	101.5
	1000인 이상	0.0	112.3	113.1	108.6	115.3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06년과 2020년 차이 변화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중졸 이하	10인 미만	-1.8	-8.2	-4.4	-7.4	-27.2
	10~100인	0.1	-8.2	-12.0	-11.5	-13.3
	100~1000인	-19.7	-5.7	-17.8	-4.3	16.4
	1000인 이상	-18.8	26.1	-101.3	1.4	-26.0
고졸 이하	10인 미만	-6.9	-4.2	-1.2	-6.2	-8.1
	10~100인	23.5	-14.1	-3.5	-3.8	7.2
	100~1000인	-25.6	-7.2	9.8	0.5	10.4
	1000인 이상	107.3	10.1	-6.8	-16.5	5.5
대재 이상	10인 미만	0.0	0.0	0.0	0.0	0.0
	10~100인	-0.6	2.3	-1.7	4.2	-16.1
	100~1000인	-26.8	7.0	3.1	2.5	5.6
	1000인 이상	-109.9	7.0	13.9	5.4	11.5

주: 1) 10인 미만=100, <부표 2>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2022. 3. 7.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표 6. 교육, 사업장 규모, 자산분위 간 비교: 총자산 2006년과 2020년 변화¹⁾

(단위: %)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사업장 규모	2006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10인 미만	100.4	92.3	89.1	87.5	87.2
	10~100인	127.4	87.1	93.7	94.4	70.4
	100~1000인	52.6	97.6	103.9	95.6	58.7
	1000인 이상	112.3	115.9	132.7	89.5	83.4
고졸 이하	10인 미만	129.5	102.7	99.2	94.3	87.8
	10~100인	140.2	96.0	105.3	85.1	68.7
	100~1000인	89.5	100.0	107.7	98.0	66.8
	1000인 이상	127.7	100.6	100.1	95.8	64.0
대재 이상	10인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100인	142.8	97.2	100.4	92.9	81.6
	100~1000인	113.3	94.7	100.0	93.2	68.0
	1000인 이상	144.5	102.8	96.1	97.1	81.3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20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10인 미만	73.0	81.0	78.3	82.6	77.2
	10~100인	72.7	76.8	82.6	77.5	58.5
	100~1000인	100.2	75.5	79.0	77.3	54.9
	1000인 이상	83.3	73.9	63.9	89.5	-
고졸 이하	10인 미만	87.7	96.8	95.4	91.6	97.0
	10~100인	87.9	94.7	94.1	88.3	105.1
	100~1000인	86.5	97.1	104.3	92.7	92.4
	1000인 이상	92.2	102.1	87.2	90.2	72.5
대재 이상	10인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100인	88.0	101.4	93.2	104.1	90.1
	100~1000인	137.5	107.1	105.7	107.5	80.5
	1000인 이상	78.8	96.3	108.9	109.4	84.0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06년과 2020년 차이 변화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중졸 이하	10인 미만	-27.4	-11.4	-10.8	-4.9	-10.0
	10~100인	-54.7	-10.3	-11.1	-17.0	-11.9
	100~1000인	47.6	-22.1	-24.9	-18.3	-3.8
	1000인 이상	-29.0	-42.1	-68.8	0.0	-
고졸 이하	10인 미만	-41.8	-5.9	-3.9	-2.6	9.2
	10~100인	-52.3	-1.3	-11.2	3.2	36.4
	100~1000인	-2.9	-2.9	-3.4	-5.4	25.6
	1000인 이상	-35.5	1.4	-12.8	-5.7	8.5
대재 이상	10인 미만	0.0	0.0	0.0	0.0	0.0
	10~100인	-54.8	4.2	-7.3	11.2	8.5
	100~1000인	24.2	12.4	5.6	14.3	12.6
	1000인 이상	-65.7	-6.5	12.8	12.3	2.7

주: 1) 10인 미만=100, (부표 2)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2022. 3. 7.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의 소득 및 자산 분위별로 대재 이상이면서 상용직인 경우를 100으로 했을 때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소득분위별(혹은 자산분위별) 비율이다. <표 3>을 통해 설명하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면서 상용직 근무자의 소득 1분위를 100으로 봤을 때, 중졸 이하로 상용직이면서 소득 1분위에 있는 그룹의 시장 소득은 86.9%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분위 내에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동일해도 교육 수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분석 기준인 2006년뿐 아니라 2020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이 경과해도 동일한 경제활동 상태에서의 교육 수준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006년의 경우에는 일부 그룹이 100%를 넘어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2020년은 거의 대부분의 그룹이 100% 이하로 나타나 동일한 분위와 경제활동 상태임에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과 <표 4> 하단의 음수는 2006년 대비 2020년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양수는 같은 기간에 격차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에서는 2006년 대비 2020년에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주된 경제활동 상태 분석과 같이 교육 수준, 사업장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대재 이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소득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10인 미만의 사

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졸 이하 소득 1분위자의 소득이 2006년에는 72.5%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70.7%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대재 이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분위가 높은 경우 대재 이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자산이 증가하는 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자산 분위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음의 모습을 보여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마무리

이 글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 참여 형태(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사업장 규모)별로 2006년에서 2020년 사이 양극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미 교육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교육 수준과 소득·자산, 노동시장 참여 형태별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2006년 이후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과 노동

시장 참여상태별로 오히려 소득과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소득이 높은 층과 낮은 층 간의 격차보다는 동일 집단 내에서 교육 수준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장소득 측면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분위와 가장 높은 분위 간 격차를 보면 시장소득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커진 반면에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어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형태별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간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조사의 장점인 코호트(동일집단)별로 분석하면서, 연령 구성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즉 2006년에 50대인 경우 2020년에는 노인으로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연령을 일정 부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었다.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다른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김경애, 류방란, 이성희, 이승호, 이희현, 장명림,
정도철, 김성식, 이삼호, 이호준, 한치록,

보건복지포럼 (2023. 02.)

김다솜, 윤종원. (2020).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 기초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김왕배. (2009).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언론과 사회** 17(3), 78-115.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코로나 전후 소득분배 진단과 정책대응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동균, 전병유. (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1997-2003. **노동경제논집**, 28(3). 한국노동경제학회. 77-109.

윤정열, 홍기석. (2012). 교육의 신호 기능과 소득양극화. **사회과학연구논총** 27.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49-76.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표 1. 교육수준별 주된 경제활동상태별 5분위별 시장소득 및 총자산

(단위: (연간)만 원)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경황상태	2006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상용직	1,092.9	2,247.9	3,106.0	4,516.7	7,054.5	6.45
	임시일용	931.1	2,088.2	2,907.8	4,695.5	7,403.7	7.95
	자영업주	900.8	2,208.2	3,198.4	4,578.7	8,255.6	9.16
	비경황	961.7	2,087.2	3,041.7	4,100.0	6,501.5	6.76
고졸 이하	상용직	1,456.1	2,409.3	3,385.6	4,796.6	6,759.4	4.64
	임시일용	1,144.9	2,244.5	3,175.6	5,070.2	7,608.5	6.65
	자영업주	1,322.7	2,411.8	3,406.6	4,729.7	9,208.6	6.96
	비경황	1,031.6	2,112.1	3,359.6	5,582.9	-	0.00
대재 이상	상용직	1,258.2	2,376.3	3,360.8	4,680.9	7,828.2	6.22
	임시일용	1,427.5	2,269.7	3,135.2	4,392.5	8,468.4	5.93
	자영업주	1,147.9	2,546.2	3,454.2	4,945.5	8,485.8	7.39
	비경황	1,035.3	2,084.1	3,243.8	4,644.0	5,996.8	5.79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경황상태	2020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상용직	1,958.9	4,201.0	5,857.6	7,314.4	11,943.5	6.10
	임시일용	1,474.8	3,630.0	5,267.1	7,784.3	11,057.7	7.50
	자영업주	1,324.3	3,708.6	5,264.5	7,164.4	9,882.3	7.46
	비경황	1,335.5	3,450.0	5,836.0	9,678.0	9,553.2	7.15
고졸 이하	상용직	2,308.1	4,312.6	6,501.6	8,326.0	12,086.4	5.24
	임시일용	1,975.4	3,826.3	5,800.3	8,255.1	13,085.9	6.62
	자영업주	1,846.5	4,234.1	6,306.1	8,072.0	14,327.7	7.76
	비경황	1,333.3	4,487.4	6,293.2	8,131.0	10,071.0	7.55
대재 이상	상용직	2,113.9	4,985.2	6,446.0	8,926.9	14,117.5	6.68
	임시일용	2,005.5	3,935.9	6,155.2	8,110.5	13,003.2	6.48
	자영업주	2,076.1	4,395.7	6,497.6	8,548.6	12,754.5	6.14
	비경황	1,676.6	5,021.6	6,598.1	7,980.9	16,076.0	9.59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경황상태	2006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상용직	1,641.8	5,436.7	13,012.0	24,063.4	57,673.1	35.13
	임시일용	1,254.3	5,835.8	11,162.8	22,025.7	60,459.3	48.20
	자영업주	1,717.2	5,922.9	11,470.4	23,344.4	70,864.3	41.27
	비경황	1,967.5	4,628.0	9,872.4	15,305.9	39,834.2	20.25
고졸 이하	상용직	1,853.6	6,165.8	12,778.8	24,040.9	52,552.4	28.35
	임시일용	1,666.8	6,195.8	12,634.4	24,895.8	56,433.6	33.86
	자영업주	1,870.6	6,710.8	13,093.9	25,172.1	77,192.0	41.27
	비경황	1,552.9	6,318.5	13,066.9	20,664.5	67,474.9	43.45
대재 이상	상용직	1,785.7	5,869.1	12,269.7	25,553.8	64,288.5	36.00
	임시일용	1,383.9	7,059.1	12,252.4	22,702.4	67,613.8	48.86
	자영업주	2,025.2	6,616.8	14,045.1	27,040.8	79,357.3	39.19
	비경황	774.4	5,432.7	12,569.2	26,796.8	52,568.8	67.88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경황상태	2020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상용직	7,247.7	15,869.6	33,396.2	55,304.3	116,671.9	16.10
	임시일용	3,729.7	15,405.0	31,230.7	58,397.3	105,841.1	28.38
	자영업주	4,899.0	16,946.6	28,764.5	53,104.3	144,502.9	29.50
	비경황	3,215.6	11,900.2	33,075.0	53,502.0	82,618.6	25.69
고졸 이하	상용직	5,659.6	20,494.5	36,221.3	61,674.5	167,627.0	29.62
	임시일용	4,425.5	18,355.3	36,137.7	62,189.2	148,155.5	33.48
	자영업주	6,057.4	19,353.1	38,118.9	62,906.3	185,959.9	30.70
	비경황	4,872.9	15,365.5	32,466.8	51,966.4	133,074.0	27.31
대재 이상	상용직	7,449.3	20,454.5	38,730.5	74,059.1	156,577.9	21.02
	임시일용	4,183.5	19,788.8	37,709.0	67,507.9	142,776.8	34.13
	자영업주	7,775.4	22,124.6	39,664.2	67,752.4	188,143.3	24.20
	비경황	4,507.0	18,460.1	32,578.9	60,288.7	126,546.2	28.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2022. 3. 7.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2. 교육수준별 사업장 규모별(1) 5분위별 시장소득 및 총자산

(단위: (연간)만 원)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사업장 규모	2006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10인 미만	920.5	2,171.5	3,012.0	4,445.7	8,099.2	8.80
	10~100인	945.6	2,199.9	3,302.8	4,721.4	7,323.7	7.75
	100~1000인	1,015.8	2,189.3	2,985.6	4,552.0	6,474.6	6.37
	1000인 이상	1,086.3	2,328.8	3,380.6	5,004.5	7,441.4	6.85
고졸 이하	10인 미만	1,281.0	2,309.2	3,283.7	4,744.4	8,428.5	6.58
	10~100인	1,019.4	2,460.3	3,403.9	4,737.4	7,262.6	7.12
	100~1000인	1,508.8	2,318.3	3,109.9	4,803.1	6,521.5	4.32
	1000인 이상	-	2,280.8	3,641.5	5,407.5	7,052.9	-
대재 이상	10인 미만	1,270.2	2,323.3	3,336.8	4,704.0	7,560.4	5.95
	10~100인	1,438.3	2,384.8	3,260.8	4,361.3	8,971.6	6.24
	100~1000인	1,224.3	2,563.5	3,424.7	4,866.8	7,249.7	5.92
	1000인 이상	1,396.0	2,446.8	3,312.5	4,857.8	7,847.3	5.62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20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10인 미만	1,421.3	3,697.2	5,432.1	7,424.2	10,296.3	7.24
	10~100인	1,499.1	3,749.7	5,499.6	7,573.0	10,766.3	7.18
	100~1000인	1,211.8	3,836.8	4,530.2	7,883.3	13,151.8	10.85
	1000인 이상	1,342.8	5,477.0	-	9,189.0	9,341.5	6.96
고졸 이하	10인 미만	1,890.4	4,128.1	6,143.9	8,072.9	13,320.8	7.05
	10~100인	2,086.8	3,981.0	6,228.6	8,265.4	13,304.9	6.38
	100~1000인	1,874.0	4,012.6	6,515.6	8,749.9	12,453.5	6.65
	1000인 이상	2,157.6	4,693.1	6,471.5	8,397.4	12,734.3	5.90
대재 이상	10인 미만	2,011.4	4,334.6	6,323.2	8,526.1	12,889.3	6.41
	10~100인	2,266.4	4,549.3	6,069.5	8,266.5	13,222.7	5.83
	100~1000인	1,400.4	5,087.3	6,682.9	9,036.6	13,087.1	9.35
	1000인 이상	-	4,867.8	7,154.6	9,261.5	14,866.2	-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사업장 규모	2006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10인 미만	1,416.5	5,773.6	11,245.8	23,125.1	69,203.7	48.86
	10~100인	1,796.7	5,445.2	11,820.1	24,960.7	55,847.5	31.08
	100~1000인	742.1	6,104.3	13,104.6	25,254.8	46,582.1	62.77
	1000인 이상	1,583.7	7,250.0	16,745.5	23,648.5	66,142.5	41.77
고졸 이하	10인 미만	1,827.0	6,424.0	12,520.4	24,912.8	69,658.0	38.13
	10~100인	1,977.9	6,002.4	13,287.9	22,498.7	54,526.5	27.57
	100~1000인	1,262.1	6,255.6	13,585.9	25,911.5	53,002.4	42.00
	1000인 이상	1,800.6	6,293.4	12,624.5	25,329.7	50,805.1	28.22
대재 이상	10인 미만	1,410.5	6,252.8	12,617.2	26,430.3	79,339.6	56.25
	10~100인	2,014.6	6,080.5	12,673.4	24,555.9	64,705.7	32.12
	100~1000인	1,598.1	5,919.6	12,623.3	24,642.1	53,933.6	33.75
	1000인 이상	2,038.0	6,429.4	12,125.4	25,675.9	64,517.7	31.66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20년(총자산)					
		자산1분위	자산2분위	자산3분위	자산4분위	자산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10인 미만	4,257.4	16,355.6	30,103.7	56,606.9	138,267.6	32.48
	10~100인	4,235.7	15,504.2	31,738.4	53,099.4	104,659.5	24.71
	100~1000인	5,842.2	15,244.8	30,374.8	52,971.5	98,361.7	16.84
	1000인 이상	4,855.4	14,919.8	24,569.0	61,346.7	-	-
고졸 이하	10인 미만	5,113.6	19,548.7	36,660.3	62,827.3	173,722.5	33.97
	10~100인	5,126.7	19,134.6	36,191.7	60,563.3	188,218.8	36.71
	100~1000인	5,044.4	19,618.9	40,094.3	63,534.0	165,409.5	32.79
	1000인 이상	5,373.9	20,617.9	33,541.5	61,814.9	129,843.5	24.16
대재 이상	10인 미만	5,829.5	20,196.1	38,444.7	68,559.6	179,016.2	30.71
	10~100인	5,129.5	20,479.2	35,813.1	71,385.6	161,266.3	31.44
	100~1000인	8,017.5	21,630.8	40,620.3	73,727.3	144,160.5	17.98
	1000인 이상	4,593.4	19,447.2	41,876.8	75,007.6	150,392.4	32.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2022. 3. 7.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부표 3. 교육수준별 사업장 규모별(2) 5분위별 시장소득 및 총자산

(단위: (연간)만 원)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사업장 규모	2006년(시장소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5분위배율
중졸 이하	5인 미만	918.6	2089.0	3061.3	4401.6	7968.5	8.67
	5~10인 미만	932.4	2499.4	2613.4	4750.4	9244.3	9.91
	10~100인	945.6	2199.9	3302.8	4721.4	7323.7	7.75
	100~1000인	1015.8	2189.3	2985.6	4552.0	6474.6	6.37
	1000인 이상	1086.3	2328.8	3380.6	5004.5	7441.4	6.85
고졸 이하	5인 미만	1311.3	2319.5	3303.3	4765.3	8425.0	6.42
	5~10인	1157.3	2286.4	3233.2	4688.1	8443.0	7.30
	10~100인	1019.4	2460.3	3403.9	4737.4	7262.6	7.12
	100~1000인	1508.8	2318.3	3109.9	4803.1	6521.5	4.32
	1000인 이상	-	2280.8	3641.5	5407.5	7052.9	-
대재 이상	5인 미만	1190.7	2269.8	3417.8	4953.5	7757.6	6.52
	5~10인	1518.7	2483.8	3219.4	4363.0	7139.5	4.70
	10~100인	1438.3	2384.8	3260.8	4361.3	8971.6	6.24
	100~1000인	1224.3	2563.5	3424.7	4866.8	7249.7	5.92
	1000인 이상	1396.0	2446.8	3312.5	4857.8	7847.3	5.62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20년(시장소득)					
중졸 이하	5인 미만	1,422.8	3,710.9	5,408.9	7,299.0	10,450.0	7.34
	5~10인 미만	1,401.5	3,633.9	5,552.6	7,991.2	10,042.4	7.17
	10~100인	1,499.1	3,749.7	5,499.6	7,573.0	10,766.3	7.18
	100~1000인	1,211.8	3,836.8	4,530.2	7,883.3	13,151.8	10.85
	1000인 이상	1,342.8	5,477.0	-	9,189.0	9,341.5	6.96
고졸 이하	5인 미만	1,846.7	4,106.0	6,205.7	7,965.2	12,493.5	6.77
	5~10인	2,228.0	4,177.4	5,836.5	8,529.9	18,589.0	8.34
	10~100인	2,086.8	3,981.0	6,228.6	8,265.4	13,304.9	6.38
	100~1000인	1,874.0	4,012.6	6,515.6	8,749.9	12,453.5	6.65
	1000인 이상	2,157.6	4,693.1	6,471.5	8,397.4	12,734.3	5.90
대재 이상	5인 미만	2,033.4	4,326.1	6,280.6	8,914.2	12,540.3	6.17
	5~10인	1,837.9	4,369.4	6,422.6	7,955.9	13,780.4	7.50
	10~100인	2,266.4	4,549.3	6,069.5	8,266.5	13,222.7	5.83
	100~1000인	1,400.4	5,087.3	6,682.9	9,036.6	13,087.1	9.35
	1000인 이상	-	4,867.8	7,154.6	9,261.5	14,866.2	-
2006년 교육수준	2006년 사업장 규모	2006년(총자산)					
중졸 이하	5인 미만	1,501.9	5,800.5	11,433.0	23,137.5	68,164.2	45.38
	5~10인 미만	1,137.0	5,639.8	10,352.5	22,570.6	75,787.2	66.65
	10~100인	1,796.7	5,445.2	11,820.1	24,960.7	55,847.5	31.08
	100~1000인	742.1	6,104.3	13,104.6	25,254.8	46,582.1	62.77
	1000인 이상	1,583.7	7,250.0	16,745.5	23,648.5	66,142.5	41.77
고졸 이하	5인 미만	1,816.3	6,486.8	12,565.0	25,379.2	72,100.9	39.70
	5~10인 미만	1,851.6	6,264.0	12,414.3	23,448.7	56,109.4	30.30
	10~100인	1,977.9	6,002.4	13,287.9	22,498.7	54,526.5	27.57
	100~1000인	1,262.1	6,255.6	13,585.9	25,911.5	53,002.4	42.00
	1000인 이상	1,800.6	6,293.4	12,624.5	25,329.7	50,805.1	28.22
대재 이상	5인 미만	1,231.1	6,743.2	13,273.3	26,839.0	70,039.7	56.89
	5~10인	2,038.8	5,596.0	11,225.8	25,879.8	99,311.4	48.71
	10~100인	2,014.6	6,080.5	12,673.4	24,555.9	64,705.7	32.12
	100~1000인	1,598.1	5,919.6	12,623.3	24,642.1	53,933.6	33.75
	1000인 이상	2,038.0	6,429.4	12,125.4	25,675.9	64,517.7	31.66
2006년 교육수준	2020년 사업장 규모	2020년(총자산)					
중졸 이하	5인 미만	4,337.7	16,422.1	29,728.6	57,169.7	138,267.6	31.88
	5~10인 미만	3,855.6	16,092.2	32,588.6	54,543.9	-	-
	10~100인	4,235.7	15,504.2	31,738.4	53,099.4	104,659.5	24.71
	100~1000인	5,842.2	15,244.8	30,374.8	52,971.5	98,361.7	16.84
	1000인 이상	4,855.4	14,919.8	24,569.0	61,346.7	-	-
고졸 이하	5인 미만	5,463.9	19,311.9	36,786.9	63,117.3	165,976.9	30.38
	5~10인 미만	4,242.3	20,486.4	36,127.1	61,215.7	216,861.4	51.12
	10~100인	5,126.7	19,134.6	36,191.7	60,563.3	188,218.8	36.71
	100~1000인	5,044.4	19,618.9	40,094.3	63,534.0	165,409.5	32.79
	1000인 이상	5,373.9	20,617.9	33,541.5	61,814.9	129,843.5	24.16
대재 이상	5인 미만	6,836.8	20,160.6	37,632.8	67,874.9	182,782.6	26.74
	5~10인 미만	3,372.6	20,293.2	39,707.7	70,256.9	164,424.3	48.75
	10~100인	5,129.5	20,479.2	35,813.1	71,385.6	161,266.3	31.44
	100~1000인	8,017.5	21,630.8	40,620.3	73,727.3	144,160.5	17.98
	1000인 이상	4,593.4	19,447.2	41,876.8	75,007.6	150,392.4	32.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2022. 3. 7.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The Implications of Polarization in Multidimensional Aspects for Social Policy

Kim, Tae-wan

Choi, Jun-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is study explores the polarization of income, assets,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The income gap between two groups of different education levels in the 1st income quintile increased from about 1.53 million won in 2006 to 4.094 million won in 2020; the gap in disposable income between the two education groups increased from about 1.01 million won to 5.316 million won in 2020. In the composition by education level within the same quintile, the proportion of thos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in the quintile with low income and assets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ith a college diploma or a higher degree. The high-income quintile has a high share of college graduates or higher, and there is a large gap by education level within the same quintile. In terms of education level, participation in major economic activities, and workplace size, there are differences by level of education even if participants participate in the same economic activity and the workplace size is within the same decile. The same is true in 2006 as well as in 2020. On the other hand, the gap between the low and high quintiles showed that market income increased over time while disposable income slightly decreased, suggesting that public transfers,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bridging the gap.